

중국 실크로드(Silk Road) 구상의 전략적 의미

이선진 (서강대 동아연구소 책임교수 / 前 주인도네시아 대사)

시진핑이 앞장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과 쟁패를 겨루던 외교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방향을 바꾸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와의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는(실크로드 구상) 한편, 지역 안보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였다. 향후 5~10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시진핑의 “주변국 외교전략”과 同 전략의 실천 방안인 실크로드 구상은 향후 한반도, 동아시아 및 중국·미국 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실크로드의 구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진핑이 제안에서부터 논의 과정까지 직접 나섰다. 향후 5~10년 중국 외교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경쟁하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에 주력한다. 셋째, 행동지향적(action-oriented)이다. 아세안에 대한 제안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실크로드 구상은 시진핑 외교의 3대 축, “경제, 안보 및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중 경제의 실천항목에 해당되며, 세계 대국을 준비하는 시진핑 외교의 선두 주자로 손꼽을 수 있는 항목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11.6.) 발표자료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시진핑의 실크로드 구상
 - 가. “Belt & Road”와 소지역 경제회랑 제안
 - 나. 구체 협력 분야
3. 실크로드 구상의 목표와 배경
 - 가. 주변국 외교 좌담회
 - 나. 중국 언론 및 학자들의 해설/논평
4. 실크로드 구상의 구체적 실천방안
 - 가. 대아세안 협력 사업
 - 나. 시진핑의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순방
5. 필자의 관찰, 평가 및 전망
6. 한국 외교의 단기적 대응과제

1. 들어가는 말

- 필자는 지난 7월 미얀마/중국 국경 지역을 여행하였다. 2010년 7월과 2012년 1월에 이어 세 번째 방문한 이 지역은 중국-미얀마-인도(방글라데시) 경제회랑 건설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 경제회랑 건설은 실크로드 구상의 한 갈래이자, 인도양 진출 전략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 2년여 만에 다시 찾은 중국의 국경 도시 “루이리(瑞麗)”의 변화에 놀랐다. 대대적인 도시 개발은 물론, 고속도로,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곳을 지나는 미얀마 경유 파이프라인 건설은 작년 완공되었다. 실크로드 구상이 외교적 수사(修辭)가 아닌 국가전략임을 실감하였다.
- 시진핑이 앞장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과 정패를 겨루던 외교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방향을 바꾸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와의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는(실크로드 구상) 한편, 지역 안보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였다.
- 향후 5~10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시진핑의 “주변국 외교전략”과, 동 전략의 실천 방안인 실크로드 구상은 향후 한반도, 동아시아 및 중국·미국 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이 글에서 실크로드 구상의 내용, 배경과 이제까지 밝힌 구체적 제안 등을 살피고, 필자의 평가와 한국 외교의 단기적 과제를 제기하겠다.

2. 시진핑의 실크로드 구상

가. “Belt & Road”와 소지역 경제회랑 제안

- “실크로드 경제벨트(經濟帶, Economic Belt)” 제안(이하 Belt)
 - 시진핑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학 연설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경제를 연결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¹⁾
- “해양 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 제안(이하 Road)
 - 시진핑은 2013년 10월 3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하였다.²⁾ 중국 언론에 의하면,³⁾ 동남아, 남아시아, 중동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건설

- 언론들은 주로 상기 “Belt & Road(중문, 一帶一路)”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 지도부는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과,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건설사업도 실크로드 구상⁵⁾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구체 협력 분야

○ 시진핑 자신이 상기 연설에서 5가지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고, 올해 3월 인민일보⁶⁾도 동 구상이 추진할 5개 연결(link) 분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 정책대화(policy link): 당사국들이 경제개발에 관한 전략과 정책을 협의하여 정책의 조화와 협력 및 지역통합의 방안을 개발하고 강화함.
- 수송망 연결(transport link)
- 무역 촉진(trade link): 무역 및 투자의 촉진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지역협력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화폐/금융협력(monetary link): 무역청산 및 통화스와프에서 자국 화폐 사용 비율을 높이고, 양자/다자 간 금융협력, 지역 금융기구 설립, 국제금융위기 대응 체재를 마련함
- 인적 교류 강화(people-to-people link)

3. 실크로드 구상의 목표와 배경

○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왜 실크로드 구상인가. 실크로드 구상이 제안된 직후 2013년 10월 24일~25일 중국 “주변국 외교전략”에 관한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시진핑은 기초연설에서 주변국 외교전략에 있어서 실크로드 구상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 이 자리에 시진핑, 리커창을 비롯한 당 중앙 상무위원 및 정치국원 전원(1949년 중국 설립 후 처음), 기업인 등 민간 경제주체, 지방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주변국 외교의 목표, 기본방침, 주요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등이 결정되었다.⁷⁾

가. 주변국 외교 좌담회

○ 시진핑은 연설에서 주변국 외교가 “중국의 꿈,” 대국(大國)의 재현(再

시진핑의 “주변국
외교전략”과
그 실천 방안인
실크로드 구상은
향후 한반도,
동아시아, 중미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주변국 외교는

“중국의 꿈”

대국(大國)의

재현(再現)에

부합하며 중국 외교의

핵심 골격

現)에 부합하며 중국 외교의 핵심 골격이라고 하면서 3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둘째, 지역안보협력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셋째, 인적·사회적·문화 협력과 통합이다.⁸⁾

-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크로드 전략을 언급
 - 실크로드 經濟帶 및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실현해야 함
 - 구체적으로, 인프라 연결(interconnection and intercommunication), FTA 이행, 무역의 확대, 투자협력 분야의 확대 및 지역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설립과 지역금융안전망의 개선 등
- 지역안보협력과 관련
 - “총체적, 공통적이며 협력적인 안보구상”을 제안하며, 중국은 “지역/소지역 안보 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함. We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regional and sub-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 장기적인 지역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공공외교, 대중외교(folk diplomacy), 문화적 협력과 통합이 필요함

나. 중국 언론 및 학자들의 해설/논평

- 상기 좌담회 이후, 주변국 외교전략과 실크로드 구상의 배경과 함의에 관하여 많은 중국 언론 및 학자들의 해석이 있었다. 이 중, 몇 가지만 소개한다.

1) 연쉐퉁(閻學通, Yan Xuotong) 교수의 2014.2.27 인터뷰⁹⁾

- 실크로드 구상을 제안한 배경
 - 중국은 이제까지 주변국 외교에 비하여 대미국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어왔으나 앞으로 대미관계보다 주변국 외교에 더 큰 비중을 두기로 함
- 주변국들과 경제협력 수준을 넘어 통합(중문, 一体化)을 추구할 것임
 - 중국-아세안 관계에서 자유무역지대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통합(一体化)을 향해 나가야 함
- Belt 구상에 러시아 참여 유도
 - 당초 러시아를 우회하여 철도, 가스/석유 파이프라인공사를 건설할 계획. 그러나 러시아를 통과하여 건설하기로 수정하여 러시아의 참여를 유도

- 중국-아세안 관계와 상해협력기구(SCO)에 대한 평가
 - 중·아세안 관계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 반면, SCO와는 경제협력 수준이 높지 않지만 전략, 군사, 정치 협력 수준은 매우 높음

2) 세계지식(世界知識)¹⁰⁾ “해상 실크로드 건설” 설력(薛力)(2014.5.16. 제1629호)

- 중국의 대국 관계가 한계에 직면, 중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필요.
 - 향후 5~10년간 대미국 정치, 외교, 안보 협력의 여지가 많지 않음
 - 향후 10년간 대일본 경제협력은 지속되나 정치, 안보 관계의 취약점은 계속될 전망
 - 대러시아 정치, 안보 협력은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추가적 협력 여지가 많지 않고, 경제협력의 여지는 많으나 러시아 경제 규모의 한계
- 과거 어느 때보다 주변국 외교에 많은 중점을 둘 방침(周邊是首要).
- 주변국 외교의 3단계 발전 중, 중국은 현재 제1단계에서 제2단계로 이동 중
 - 제1단계 주변안정(穩定周邊); 제2단계 주변경영(經略周邊); 제3단계; 자기 영역을 만드는(塑造周邊) 단계
 - 향후 중국 주변국 정책 방향은 통일전선 확대, 주변에 영향권 조성 및 지축(支軸) 국가 육성, 개별 국가의 고립화¹¹⁾ 등으로 예상
- 주변국 외교의 실천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Belt & Road” 구상을 활용¹²⁾

3) 인민일보 영문인터넷, “The Silk Road—from the Past to the Future” (2014.3.11)

- 실크로드 제안의 배경
 - 아시아의 지역통합¹³⁾은 시대적 요구
 - 중국 동부, 중부, 서부의 발전 격차 확대 해소 필요
 - 유라시아 대륙에도 큰 시장이 존재함
- 국경 지역을 개방하여 주변국과 경제회랑을 건설. 한편, 연안 지역은 개방을 계속하여 해양협력을 확대
- 중앙아, 러시아, 남아시아, 동남아가 실크로드 구상의 우선대상 지역임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지역안보협력,
인적·사회적·문화
협력과 통합이
3대 추진방향**

시진핑은
중·아세안 관계를
“공동운명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對 아세안
협력방안을 제시

4) 국무원발전연구중심국 자오진핑(赵晋平) 부장(2014년 7월 한·중 경제포럼 발표)

- 실크로드 구상은 중국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미국 주도의 태평양(TPP)과 대서양(TTIP)에 대응, 그리고 잠재력이 높은 주변 신흥시장과의 연계 목적임

5) 북경대학교 왕지스(王缉思, Wang Jisi) 교수 논문¹⁴⁾

- 왕지스 교수가 2012년 중국 정부에게 “서진(西進) 정책 Marching Westwards”, “신 실크로드”를 건설하자고 건의한 내용이 이번 구상에 많이 반영됨
- 왕지스 교수는 중국이 동아시아에만 집착하지 말고 서아시아로 향하는 서진 정책을 취하여 남아시아, 중앙아, 중동으로 향하는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
 - 동아시아 지역과 달리,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일본과 협력의 여지가 많이 있음(예로, 아프가니스탄 문제, 에너지 협력, 테러 협력 등)
 - 서진 정책은 중국의 경제 성장, 소수민족 문제 해소에도 필요함

4. 실크로드 구상의 구체적 실천방안

- 시진핑은 작년 해양 실크로드 구상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중·아세안 관계를 “공동운명체(community of common destiny for peace and prosperity)”로 규정하였다.¹⁵⁾ 그 후 여러 계기에 제안한 대아세안 협력 방안도 매우 구체적이다.

가. 대아세안 협력 사업

- 중국 지도부가 아세안과의 협력 방안을 직접 제안하였고,¹⁶⁾ 왕이 외교부장도 올해 8월 12개 항목의 사업을 제시¹⁷⁾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 중/아세안 정상회의의 정례화(보아오 포럼, 또는 중·아세안 포럼 계기)
 - 2015년 최초의 중/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중국 개최
 - 중/아세안 우의·친선·협력 협정의 조기 체결
 - 중/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2016~2020 행동 계획 작성
 - 중/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 2020년까지 중국·아세안 무역을 1조 달러로, 투자를 1,500억 달러로 확대
 - 중/아세안 투자협력기금을 활용하고, 아시아 인프라 건설 은행(AIIB)을 설립하여 철도, 도로, 해상, 항공, 통신 등 지역 연계를 강화
 - 양자 통화스와프 체결, 자국화폐로 무역 청산, 중국 채권시장의 아세안

- 참가 지원, 지역금융안전망 구축 등 금융 협력을 강화
- 해양 실크로드의 건설에 아세안의 참여 및 중/아세안 해양 협력을 강화. ① 2015년을 “중/아세안 해양협력의 해”로 지정, ② 남중국해 연안 국가 사이 대화·협력·공동 개발 논의 강화 및 올해 9월 남중국해 COC 회의 개최 ③ 해양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 ④ 항만도시협력 네트워크 구축, ⑤ 중국이 제공하는 중/아세안 해양협력기금(30억 RMB) 활용 등
- 중·아세안 “동남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
- 인적 교류의 활성화: 향후 3~5년 사이 아세안 15,000명에 정부 장학금 지원 등

나. 시진핑의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순방

- 시진핑은 지난 9월 타지키스탄 개최 상해지구 정상회의(SCO) 참석 후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를 순방하면서 실크로드 건설에의 동참을 촉구하였다. 이번 순방 중 주요 제안 및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아-중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착공(총연장 1,000km,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통과. 2016년 완공)
- 타지키스탄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착공
-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건설에 합의
- 스리랑카, 아세안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 및 해양 실크로드 참여 약속
- 인도에 대하여 중국-미얀마-인도 경제회랑 건설, 인도 철도사업에 중국 참여, 인도에 2개 중국 공단 건설, 평화적 핵 협력 등 12개 항목의 합의

*실크로드 구상은
앞으로도 수정·발전
되겠지만, 중국
제안이 구체성을 띠고
있음에 비추어 이미
실천 단계에 돌입*

5. 필자의 관찰, 평가 및 전망

- 실크로드 구상이 앞으로 수정·발전되겠지만 중국 제안이 구체성을 띠고 있음에 비추어 동 구상은 이미 실천 단계에 돌입하였다.

1) 실크로드 구상의 특징

- 실크로드 구상은 시진핑이 직접 제안하였고, 주변국 외교의 방향도 공개 석상에서 직접 제시하였다. 이 구상은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기존 외교 행태 및 전략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시진핑의 집권이 예상되는 2022년까지를 내다본 장기 전략으로 보임¹⁸⁾

실크로드 구상은
시진핑 세계전략의
핵심으로,
대중 견제와 압박에
대한 대응책

- 동아시아에 집중하던 외교 중심을 동남아, 중앙아, 남아시아로 우회(迂回)
↳ 첨부: Belt & Road지도(신화사)



- 대결자세 지양(Non-confrontational) 한 자세
 -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과 대립하던 모습과 달리,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 인도와 경쟁보다 협력하려는 모습
- 행동지향적(Action-oriented) 구상
 - 작년 Belt & Road 제안 이후 중국지도부와 외교부장은 매우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2) 실크로드 구상은 시진핑 세계전략(global strategy)의 핵심

- 실크로드 구상은 중국 부상에 대한 미국, 일본, 인도 등의 견제와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에도 중국은 미국의 관심이 약한 동남아 지역에 경제를 앞세워 접근하여 크게 성공하였다.¹⁹⁾
 - 태평양에서 미국과 공존하는 “신형 대국 관계”의 실현이 당분간 어렵고,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전면적 패권경쟁에 돌입할 여건도 성숙되지 않았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우선 아래와 같이 주변 지역 전략에 집중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찾는 한편, 외교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임.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높인다(經略周邊).
 - 동남아를 자국 영향권하에 두려는 노력을 계속한다(塑造周邊). 동남아는

주변국 외교의 최우선 고려 지역이며,²⁰⁾ 아세안은 관건적 위치를 차지²¹⁾

- 중국은 아시아 지역 안보구조의 개편에 참여도를 높여나간다.
- 그 결과에 따라 세계 대국을 겨냥한 외교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임

3) 국제정세는 실크로드 구상에 유리한 국면

- 현 국제정세는 지난 2~3년 전과 달리 중국을 견제하려는 세력이 크게 약화된 반면, 중국의 지역협력 제안에 오히려 호응하는 분위기이다.
 - 크림 사태로 미국·러시아 대립 속에서 중국·러시아 협력 분위기 고조
 - 미국은 크림 사태, ISIS 대응, 중동사태,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란 핵협상 등 문제로 인하여 중국과 대립할 여력이 없고, 오히려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
 - 일본의 대중국 견제력의 한계: 아베노믹스(경제)의 전망 불투명, 일본의 대중국 견제 노력에 대하여 아세안, 한국 등 주변국의 낮은 호응도
 - 중국의 부상에 편승하려는 아세안 내 분위기: 2010~2년 미국에 동조하여 중국에 대응하던(gang-up) 분위기와 달리, 올해 중국 시추선의 남중국해 진입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차분하게 대응

4) 장애 요인

- 실크로드 구상 추진의 장애 요인도 존재하는 가운데 그중 다음 요인들은 단시일 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영유권 분쟁이 있는 한 중국의 공동 개발제안, 다양한 해양 협력 방안에 대한 호응을 유도하기 쉽지 않고, 자칫하면 중국 위협론마저 다시 부상할 가능성
 - 인도, 러시아의 참여 유도: 중앙아시아(經濟帶), 동남아 및 남아시아에 대한(해양 협력) 실크로드 추진에 있어서 대인도 및 러시아 관계를 경쟁이 아닌, 참여자로 계속 확보하는 문제
 - AIIB 설립, 대아세안 협력 기금, 해양 협력 기금, 인민폐의 국제화 및 지역금융협력 등에 막대한 재정 부담과 금융 위기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

시진핑 주변국 외교는 경제와 안보 전략을 병행하며 행동을 앞세우고 있어서 동아시아 정세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

6. 한국 외교의 단기적 대응과제

- 시진핑 주변국 외교는 경제와 안보 전략을 병행하고, 행동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정세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국내적으로 논쟁의 유발을 기대하면서 우선 단기적 과제만 정리하였다.

**동북아 지역 협력이
퇴조하고
한국 경제가
저성장하며
한반도 긴장 상황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국 외교는
주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1) 미국(일본)·중국 대립 속에서 한국의 결정을 어렵게 할 사안들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문제: 아세안 9개국(인도네시아만 결정유예), 중앙아, 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 의사 표명
- 중국 자국 화폐 사용 및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확대
- 중·아세안 해양 협력 사업에의 참여 문제(중국이 30억 인민폐 제공, 생태 조사, 환경, 긴급피난 사업 개발)
- 중국이 남중국해에 항공식별구역(CADIZ) 확대할 경우의 대응책
- 장기적으로 시진핑의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 안보관,” 동남아를 자신의 영향권 지역으로 삼으려는 중국 전략에 대한 대응

2) 동남아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책

- 중국과 일본이 정부 지원하에서 동남아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어서 정부차원의 대응책 필요(예로, 아세안 해군력 증강과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계획 등)

3) 국제정치 무대에서 동북아의 상대적 퇴조

- 동아시아의 경제 활력이 동남아/서남아로 이동 중임
-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제안과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 인도 등이 Indo-Pacific 협력방안을 부각시키고 있어 국제적 관심도 남하(南下) 추세
- 이러한 환경에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또는 한국 고립책에 대한 대응책. “동평구(東平構)” 전략의 수정 보완도 필요

4) 한국 외교의 주변화 가능성

- 동북아 지역 협력의 퇴조 추세하,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한반도 긴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주변화될 가능성

5) 한국 유라시아 전략과 중국의 실크로드(Belt) 조화문제

주석

- 1) 시진핑, 카자흐스탄 방문 중 Nazarbayev 대학에서 2013.9.7 연설(중문 연설문 참조).
- 2) 시진핑의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문(영역).
- 3) 시진핑의 몰디브, 인도 방문(2014.9), 왕이의 이집트 등 순방(2014.8).
- 4) 시진핑은 금년 SCO정상회의 계기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몽골 대통령과의 9·11 회동에서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건설을 제안(신화 2014.9.12. 영문판).
- 5) 예로, 시진핑은 금년 9월 인도 방문에 앞서 인도 언론 기고문에서,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해양 실크로드, 실크로드 經濟帶 3가지를 거론하면서 인도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 6) 인민일보 영문 인터넷(2014.3.11), “The Silk Road—from Past to the Future.”
- 7) 世界知識 “해상 실크로드 건설” 薛力(2014.5.16 제1629호).
- 8) Chinese Central Government’s Official Web Portal, “Important Speech of Xi Jinping at Peripheral Diplomacy Work Conference(2013.10.30)” (2014.9.18 열람).
- 9) 연쇄통 교수의 기자회견, Silk Road Economic Belt shows China’s New Strategic Direction: Promoting Integration with its Neighbors(2014.2.27 21st Century Business Herald 게재).
- 10) 중국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발간하는 隔 주간지.
- 11) “개별 국가 고립”의 의미가 명확치 않으나 중국의 정책과 대립되는 국가는 고립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12) 주변국 외교, 실크로드 전략이 향후 5~10년 중국 외교전략의 기본이라는 말은 중국 언론 및 학자들 사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 연구원 원장 Qu Xing도 같은 내용의 발언(Beijing Review 2013.11 제45호).
- 13) 이 글에서 regional cooperation과 regional integration을 혼용하여 쓰고 있다.
- 14) Wang Jisi, “Marching Westwards”: The Rebalancing of China’s Geostrategy(북경 대학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Report 73호, 2012.10.7).
- 15) 리커창, 2013.9.3 난닝 개최 ‘중·아세안 EXPO 겸 중·아세안 비즈니스/투자 포럼’에서 연설. 시진핑과 리커창은 작년 10월 동남아 순방 중에도 “중·아세안 공동운명체”라는 용어 사용하였다.
- 16) 리커창이 작년 9월 난닝 중·아세안 포럼에서, 그해 10월 시진핑과 리커창이 각각 동남아를 순방하면서 제안하였다.
- 17) 왕이 외교부장은 미얀마 개최 ARF 계기 아세안+중국 외교부장관 회의에서 12개 항목의 대아세안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 18) 시진핑도 주변국 외교를 향후 5~10년 전략으로 규정하였다(주변국 외교 좌담회 연설).
- 19) 1990년대 동남아 지역은 동북아와 달리 미국의 관심도가 매우 낮았으며,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세계적 대 테러 작전에 몰두하고 있는 시기임을 활용하여 동남아 지역에 적극 접근하였다. 그 결과,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국 위협” 이미지를 크게 낮추면서 경제교류를 통하여 “중국 기회” 이미지를 고양시켰.
- 20) 리커창, 2013.9.3 난닝 개최 중·아세안 EXPO에서 연설, “China will unswervingly

give priority to ASEAN in its neighborhood diplomacy.”

- 21) 세계지식(2014.5.16.): “해상 실크로드 건설이 남중국해 해결의 촉진제,” 아세안이 주변국 외교의 최중점지역이다. 즉, 중국 新安全觀의 실험대상이며, 자유무역지대의 대상 지역이다.

❖ 저자 약력

■ 이선진

現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 재직 중. 前 한국 외교관(주인도네시아 대사 및 주상하이 총영사, 본부 중국과장, 외교정책국장 및 실장, 미국·중국·일본 근무).

2008년 외교부 퇴직 후 중국·아세안(미얀마·라오스·베트남) 국경 등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현지답사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2011), 『대사들, 아시아 전략을 말하다』(2012·이상 편저)가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협력 및 동남아 관련 다수의 기고 및 칼럼이 있다.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